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제28권 5호 별지 (다해) 2007.1.1

[묵상]



어머니

모든 걸

품어 간직 하시고...

● 하삼두 스테파노 (화가)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2007년도 사목지침

고유의 성전과 사제관을 갖춘 우리 백삼위 한인성당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이끌어주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우리 본당의 역사 속에는 이렇듯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 국내외 많은 은인들의
물적 영적 도움과 투철한 복음의 정신으로 주님 사도적의
역할을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전임 사제와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사랑과 긍지로 삼으며, 주님께서 주신
2007년 새해를 다음과 같은 사목지침에 맞추어
생활하도록 노력합니다.

1.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본당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는
청정한 마음과 기쁨으로 봉사한다.
2. 하느님 말씀의 보고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 그
가르침을 맛 들여 실천하고, 백삼위 신앙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3. '작은 교회'인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기도를 통하여 주님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가정을 성화시킨다.
4. 소공동체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활성화하여
선교활동의 기초로 삼아 냉담신자 회무운동과 신자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5. "순교로 지킨 신앙, 선교로 꽃 피우자!"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자!"는 우리 본당의 표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정해진 새해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 새해

유철희 바오로 본당 총회장
구 마리아네 본당 전교수녀
박상대 마르코 본당신부

2006년 12월 31일
송년 밤미사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 ▶ **입당송**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 ▶ **입당성가** : 전례성가 238
- ▶ **제1독서** : 시편 8,1-9
- ▶ **화답송**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주님의 구원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고,
 숲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 ◎
- ▶ **제2독서** : 요한1서 2,18-21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도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도다. ◎
- ▶ **복음** : 마태 25,31-46
- ▶ **2006년 백삼위 추억의 Review**
-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56, 268
- ▶ **영성체송** :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 ▶ **성체성가** : 전례성가 279, 289
- ▶ **파견성가** (Auld Lang Syne - 개사)
 - 1) 오랫동안 사귀어온 형-제-자매여
 송년이란 웬 말인가 보-내야 하는가.
 한해동안 받은은혜 잊을-수 없어
 변함없는 사랑위해 노-래를 부르자.
 - 2) 오랫동안 정들어온 형-제-자매여
 지난시간 돌아보니 아-쉬움 가득해
 믿음희망 사랑으로 다져진 백삼위
 송구영신 새날위해 축-배를 들-자.
 - 3) 주님안에 벗되어온 형-제-자매여
 미움반목 웬 말인가 다-털어 버리자
 어디간들 감사하는 백삼위 공동체
 새해에도 주님은혜 가-득-하리라.

2007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새해 첫날인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낳으심을 경축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명칭은 4세기경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자 성모 마리아께 붙여진 칭호로서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70년부터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 **입당송** : 말씀을 잉태하신 동정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낙원의 문이시니, 하느님을 세상에 낳아 주시고 하늘을 저희에게 열어 주셨나이다.
- ▶ **입당성가** : 전례성가 252
-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 **화답송** :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전례 성가 62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 ▶ **복음** : 루카 2,16-21
-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14, 217
-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로다.
- ▶ **성체성가** : 전례성가 158, 152
- ▶ **파견성가** : 전례성가 105

평화의 중심인 인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창세 1,27)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은총을 통하여 창조주와 계약을 맺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과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새롭게 하여 그 진보에 기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인간에게 맡겨진 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민족들 간의 평화에, 우리 인간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도 역시 평화는 더욱이 하느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 행동의 원칙, 그리고 정의와 연대성에 따른 인간 상호 관계의 원칙은 하느님의 현명하신 계획이 반영된 인간 양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개인적 응답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기준은 오직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 놓으신 '문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할 의무는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모든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옹호합니다. 특히 교회는 모든 이의 생명권과 종교 자유의 권리를 증진하고 수호합니다.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이 그 생명의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확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자유를 확인하는 것은 인간을 자의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초월적인 원리와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생명권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인간의 권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권한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존엄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권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폭력을 고발하여야 합니다. 무력 분쟁과 테러, 여러 형태의 폭력의 희생자들과 함께, 기아와 낙태 그리고 인간 배아 실험과 안락사에 의하여 소리 없이 죽어간 생명권 침해를 비판해야 합니다. 낙태와 인간 배아 실험은 지속적인 평화 관계 수립에 필수적인,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로운 표현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과 타종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상에 평화가 부족하다는 또 다른 불안한 증상을 보여 줍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갈등의 근원에는 확실히 많은 부당한 불평등이 여전히 비극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사악한 것은 식량, 물, 거처, 건강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얻는 불평등입니다. 또한 남녀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근본 요소는 인간의 본질적 평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민족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박탈은 폭력적 반발의 원인이 되어 평화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차별 또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자연 생태 환경, 곧 자연과 인간 생태학의 연관성을 더욱 잘 인식해야 합니다. 환경을 무시하면 인간의 공존을 해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경험이 말해 줍니다. 피조물과의 평화와 인간사이의 평화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인의 일부입니다. 환경을 부적절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파괴와 지구 자원의 무자비한 축적은 불만과 갈등 그리고 전쟁을 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파괴와 축적이 개발에 대한 비인간적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도덕-종교적 차원을 무시하고 기술-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경우 이는 온전한 인간 발전이 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인간의 파괴적 능력의 고삐를 풀어놓는 결과를 분명히 초래할 것입니다.

(뒷면 계속)

제40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계속)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제적인 어려움과 긴장의 구조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중오와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이념과 문화적 편견, 또는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물들지 않은 인간관을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남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평화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성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서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빈약한' 인간관은 아무리 특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피상적으로 평화를 옹호할 뿐입니다. 안정된 참 평화는 인권 존중을 전제로 하며, 인권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데는 인간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의 객관적 요청에 근거할 때에만 인권이 모순되지 않고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권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인권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함이 없으면 우리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 기구들은 언제나 인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특히 국제연합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인권 신장을 근본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일종의 도덕적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 선언에서 언급한 권리가 이를 승인한 총회의 결정뿐 아니라 인간 고유의 본성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존엄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져서 지켜진다면,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기구는 인권의 천부적 근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공통 본성에 관련된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각 국가들이 전쟁 때에도 존중해야 할 국제인도법이 성립됩니다. 불행히도 지나간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의 전쟁 상황에서도 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최근 몇 년간의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겪는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좀 더 명확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늘 국제 공동체의 실패이며 인류의 심각한 손실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인도주의 원칙과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삶의 근본 가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간인과 모든 희생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동규범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최근 몇몇 나라들이 보여 준 핵무기 보유 의사입니다. 이는 만연되어 있는 불확실성의 분위기와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불행하게도 무서운 덩어름이 여전히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핵무기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 조약뿐 아니라 핵무기 축소와 궁극적인 핵무기 해체를 위한 확고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갖 노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전체 인류 가족의 운명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화 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 존엄과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성을 다해 수호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존엄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평화를 용기 있게 구축하여야 하는 궁극적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 베네딕토 16세